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9/16

담뱃값 인상하면 흡연 줄어들까?

지난 3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금연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일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며 서민의 세금을 늘려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7월에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담배 한 갑 당 세금을 2회의 걸쳐 400원 인상하고 이후 인상폭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들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자들의 금연 의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3월 18~21일(4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11명
5. 표본오차: $\pm 2.8\%$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7%(총 통화 7,024명 중 1,211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담뱃값 2천 원 인상, ‘찬성’ 52% > ‘반대’ 39%
- 45명 이상 술집,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 ‘찬성’ 88% > ‘반대’ 10%
 - 작년 11월에 비해 찬성 의견 더 늘어 -
- 흡연자, 담뱃값 4천 5백 원으로 오르면 ‘끊겠다’ 39%, ‘계속 피우겠다’ 47%,
- 흡연자, 담뱃값 만 원으로 오르면 ‘끊겠다’ 54% > ‘계속 피우겠다’ 33%
- 성인 흡연율 23%: 남성 43%, 여성 4%
 - 하루 평균 18개비 피워

담뱃값 2 천 원 인상, '찬성' 52% > '반대' 39%

지난 3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담뱃값을 현행보다 2천 원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 바 있다. 우리 국민들은 담뱃값 인상에 얼마나 찬성할까?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1명에게 담뱃값 2천 원 인상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52%, '반대' 39%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은 흡연 여부에 따라 갈려

- 비흡연자(928명)에서 찬성 61%, 반대 29%로 찬성이 우세한 반면
- 흡연자(283명)에서는 찬성 24%, 반대 70%로 반대가 더 많았다.

흡연자가 적은 여성에서 찬성(60%)이 반대(31%)보다 많았지만
흡연자가 많은 남성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 담뱃값 2천 원 인상안에 대한 찬반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찬성	반대	모름/응답거절
전체		1,211	52	39	8
성별	남성	600	45	<u>47</u>	8
	여성	611	<u>60</u>	31	9
연령별	19~29세	217	57	40	2
	30대	240	50	45	5
	40대	264	52	36	11
	50대	237	48	39	13
	60세 이상	253	55	34	11
흡연 여부	흡연	283	24	<u>70</u>	5
	비흡연	928	<u>61</u>	29	10

질문) 최근 담뱃값을 2 천 5 백 원에서 4 천 5 백 원으로 2 천 원 인상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45 평 이상 술집,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 '찬성' 88% > '반대' 10%

- 작년 11월에 비해 찬성 의견 더 늘어 -

작년 12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연면적 150m²(45평) 이상의 모든 식당, 커피숍 및 술집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45평 이상 술집, 음식점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해서는 '찬성' 88%, '반대' 10%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찬성했다. 법안을 시행하기 전인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찬성' 74%, '반대' 22%였는데 시행 후 석 달 사이 찬성 의견이 더 많아졌다.

45평 이상 술집, 음식점 흡연 금지에 대해서는 비흡연자는 물론 흡연자(283명) 중에서도 찬성(77%)이 반대(17%)보다 많았다.

▶ 45평 이상 술집,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에 대한 찬반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찬성	반대	모름/응답거절
2012년 11월 - 시행 전		620	74	22	5
2013년 3월 - 시행 후		1,211	88	10	3
성별	남성	600	84	12	4
	여성	611	91	8	1
연령별	19~29세	217	81	14	5
	30대	240	90	10	-
	40대	264	88	9	3
	50대	237	89	8	3
	60세 이상	253	90	8	2
흡연 여부	흡연	283	77	17	5
	비흡연	928	91	7	2

질문) 작년부터 45 평 이상 술집과 음식점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흡연자, 담뱃값 4 천 5 백 원으로 오르면 '끊겠다' 39%, '계속 피우겠다' 47%

흡연자 283명에게 담뱃값이 4천 5백 원으로 오르면 담배를 계속 피우겠는지를 물은 결과 '계속 피우겠다' 47%, '끊겠다' 39%로 답해 흡연자 열 명 중 네 명은 금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하루 흡연량 한 갑(20개비) 이하 흡연자는 약 40%가 4천 5백 원으로 담뱃값 인상 시 담배를 끊겠다고 답한 반면, 하루 한 갑 초과 흡연자들은 그 비율이 19%로 적었다.

▶ 담뱃값이 4천 5백 원으로 오르면 담배를 계속 피우겠는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계속 피우겠다	끊겠다	모름/응답거절
흡연자 전체		283	47	39	14
연령별	19~29세	39	46	<u>47</u>	7
	30대	76	47	40	13
	40대	75	48	37	15
	50대	60	49	36	15
	60세 이상	34	41	37	21
하루 흡연량	10개비 이하	104	43	44	13
	11~20개비	137	44	41	15
	21개비 이상	42	<u>69</u>	19	12

질문) 담뱃값이 4천 5백 원으로 인상된다면 귀하께서는 담배를 계속 피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끊으시겠습니까?

흡연자, 담뱃값 만 원으로 오르면 '끊겠다' 54% > '계속 피우겠다' 33%

흡연자 283명에게 만약 담뱃값이 더 올라 만 원이 된다면 담배를 계속 피우겠는지를 묻은 결과 '계속 피우겠다' 33%, '끊겠다' 54%로, 4천 5백 원 인상에 비해 금연 의향자가 15% 포인트 많았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하루 흡연량 한 갑(20개비) 이하 흡연자의 약 60%, 특히 20/30대 흡연자에서 금연 의향자가 많았다. 그러나 하루 한 갑 초과 흡연자는 담뱃값이 만 원으로 올라도 46%가 '계속 피우겠다', 32%가 '끊겠다'고 답했다.

▶ 담뱃값이 만 원으로 오르면 담배를 계속 피우겠는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계속 피우겠다	끊겠다	모름/응답거절
흡연자 전체		283	33	54	14
연령별	19~29세	39	27	<u>70</u>	3
	30대	76	31	58	11
	40대	75	37	47	16
	50대	60	37	47	15
	60세 이상	34	25	52	23
하루 흡연량	10개비 이하	104	31	59	10
	11~20개비	137	30	57	14
	21개비 이상	42	<u>46</u>	32	22

질문) 담뱃값이 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귀하께서는 담배를 계속 피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끊으시겠습니까?

성인 흡연율 23%: 남성 43%, 여성 4%

- 하루 평균 18 개비 피워

본 조사에서 성인 흡연율은 23%, 성별로는 남성의 43%, 여성의 4%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남성(58%), 40대 남성(53%), 50대 남성(48%)의 흡연율은 50% 선으로 높았으며, 20대 남성(27%)과 60세 이상 남성(29%) 흡연율은 30%를 약간 밑돌았다.

한편, 흡연자(283명)가 하루 피우는 담배량은 평균 18개비로 한 갑에 조금 못 미쳤다.

▶ 흡연율/하루 흡연량 (단위: %)

구분		표본수(명)	담배를 피운다 (흡연율)	피우지 않는다
전체		1,211	23	77
성별	남성	600	43	57
	여성	611	4	96
연령별	19~29세	217	18	82
	30대	240	31	69
	40대	264	28	72
	50대	237	25	75
	60세 이상	253	14	86
성/ 연령별	남성 19~29세	113	27	73
	30대	121	58	42
	40대	134	53	47
	50대	121	48	52
	60세 이상	112	29	71
	여성 19~29세	104	8	92
	30대	120	5	95
	40대	130	3	97
	50대	116	1	99
	60세 이상	141	2	98

구분		표본수 (명)	10개비 이하	11~ 20개비	21~ 40개비	40개비 이상	평균 (개비수)
흡연자 전체		283	37	48	13	2	18
연령별	19~29세	39	64	31	5	-	14
	30대	76	37	49	14	-	17
	40대	75	31	52	14	2	19
	50대	60	23	54	19	4	23
	60세 이상	34	43	47	10	-	16

질문) 귀하께서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운다면) 하루 몇 개비를 피우십니까?

참고로, 올해 9월 1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성인 및 청소년의 흡연현황> 보고서에서는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제5기) 결과 국내 성인의 현재 흡연율이 남성 47%, 여성 7%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8년 66%에서 지속 하락해 2007년 45%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47~48% 선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성인 및 청소년의 흡연현황>](#)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 결과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는 조사 시기와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다. 단,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표본 규모가 더 크고 매년 실시되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흡연율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수치 인용을 권장한다.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